

<http://dx.doi.org/10.17703/JCCT.2018.4.4.123>

JCCT 2018-11-15

## 경남지역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 및 자립개설에 대한 조사연구

### The Study about the Job Satisfaction and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Physical Therapy of Working Physical Therapist in Gyeongnam Region

이준철\*

Jun-cheol Lee\*

**요 약** 본 연구는 물리치료 인식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자립개설에 관한 의식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남지역 물리치료사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현재의 근무처 및 소속여건,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카이제곱검정의 빈도분석을, 자립개설에 관한 연구는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  $\alpha$ 는 0.05로 선정하였다. 성별에 따른 물리치료에 대한 흥미도는 남자가 52.2%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기능력 발전에 대해 종합병원이 32.8%로 의원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개설에 대한 찬반의견은 83.4%가 찬성하였고, 자립개설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적인 이론 및 임상 치료기술 습득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설 분야는 근골격계 물리치료가 45.2%, 자립개설 시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의사의 의식 39.7%로 나타났다. 자립개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들의 전문적인 이론 및 임상치료기술을 습득하고, 물리치료사와 의사간의 의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물리치료 관련학과를 4년제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며,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에 대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 물리치료사, 직업만족도, 자립개설, 경남지역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suggest basic data required to improve the awareness of physical therapy and examine physical therapists' awareness of the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physical therapy clinics. To do so, 175 physical therapists in Gyeongnam areas were surveyed.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SPSS 10.0, and their current workplace, working conditions and job satisfaction were analyzed using chi square distributions. The awareness of independent establishment was analyzed using the Excel program.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 $\alpha$ ) in this study was set at 0.05. Their interest in physical therapy was surveyed by gender, and 52.2% of males showed interest, higher than that of females. The satisfaction level of those who work in general hospitals with self-development was 32.8%, higher than that of those who work in clinics. To the question about independent establishment, 83.4% agreed to independent establishment, and 57.5% answered that the first thing to do before independent establishment is acquiring professional theoretical knowledge and clinical treatment skills. In terms of the areas of establishment, 45.2% answered physical therapy for the musculoskeletal system, and 39.7% answered that the awareness of doctors is the biggest obstacle to independent establishment. It will be necessary to ensure physical therapists acquire professional theoretical knowledge and clinical treatment skills and to improve awareness between physical therapists and doctors.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departments related to physical therapy need to be unified as a four-year course, and the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physical therapy clinics is required to be legalized.

**Key Words** : Physical Therapist, Job satisfaction, Independent establishment, Gyeongnam region

\*정회원, 경남정보대학교 물리치료학  
접수일자: 2018년 8월 28일, 수정완료: 2018년 9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10월 5일

Received: August 28, 2018 / Revised: September 16, 2018  
Accepted: October 5, 2018

\*Corresponding Author: hklee1348@hanmail.net  
Dept. of physical Therapy,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Korea

## I. 서론

물리치료사는 보건의료전문직으로서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많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물리치료사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업무의 질, 종사의욕, 사명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1] [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일본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보다 부족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업무량, 보수, 복지시설 등에서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3] [4] [5].

그러므로 개인은 동기나 능력에 맞는 근무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개인의 능력이 근무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직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직무 만족감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환자에게 양질의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의 근무환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6] [7] [8] [9] [10].

그러나 물리치료사들은 과다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 환경 및 복지시설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효율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근무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대접 받고 있다는 만족감과 긍지가 생겨나야 할 것이다. 또한 양질의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립개설을 허용하여 자유경쟁을 통한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장이 의료계의 권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11] [12] [13].

산업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체장애자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물리치료사의 질적 향상과 인력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14] [15]. 그러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로 의료 재활전문 인력에서 물리치료사의 수는 환자 수에 비해 턱무니없이 부족하고, 환자의 부담도 증가되었다. 따라서 물리치

료사에 대한 자립 개설이 이루어지면 국민들의 건강보혐료는 물론, 환자들의 직접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16] [17] [18].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의 특수성과 물리치료사의 직무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남지역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와 자립개설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여 물리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8년 2월 5일에서 2월16일까지 경남지역의 종합병원, 병원, 일반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2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작성요령을 정확히 숙지시킨 후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무응답 25부를 제외한 175부를 회수하였으며, 설문지 회수율은 87.5%였다. 회수한 175부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연구방법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 및 자립개설에 관한 연구를 조사하기 위해 선행연구자들 [1] [8] [19]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설문지 문항은 일반적 특성 6문항, 현재의 근무처 및 소속여건 7문항, 직무만족도 16문항, 자립개설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현재의 근무처 및 소속여건,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카이제곱검정의 빈도분석을, 자립개설에 관한 연구는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  $\alpha$ 는 0.05로 선정하였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대한 물리치료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물리치료사 중에서 연구시점 현재 경남 부산권 지역의 종합병원, 병,의원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근무환경,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여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자립개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106명으로 60.6%로 나타났다. 결혼유무는 67.4%로 기혼 32.6%보다 많았다.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이 63.4%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대졸은 21.1%, 대학원졸업 이상은 15.4%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처는 병원이 38.9%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이 38.2%, 의원이 22.9%순으로 나타났다. 경력은 2~10년이 66.9%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이 17.1%, 1년이하가 16%로 가장 적었다(Table 1).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 40.6%로 가장 많았고, 8시간이 31.7%, 9시간 이상이 37.1%를 차지하였다(표 1).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 175명 중 남자는 69명으로 39.4% 여자는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항목	구분	빈도(N=175)	구성비(%)
성별	남	69명	39.4%
	여	106명	60.6%
결혼유무	미혼	118명	67.4%
	기혼	57명	32.6%
최종학력	전문대졸	111명	63.4%
	4년제대졸	37명	21.1%
	대학원졸 이상	25명	15.4%
근무처	종합병원	67명	38.2%
	병원	68명	38.9%
	의원	40명	22.9%
경력	1년이하	28명	16%
	2~10년	117명	66.9%
	10년이상	30명	17.1%
1일 근무시간	5시간	1명	0.6%
	7시간	38명	31.7%
	8시간	71명	40.6%
	9시간	52명	29.7%
	10시간	13명	7.4%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성별에 따른 물리치료에 대한 흥미도를 보면 매우 그렇다가 남자가 52.2%, 여자가 23.6%로 나타났고,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동료직원들 사이의 협조성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매우 높다가 남자는 20.3%, 여자가 14.2%로 남자가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치료와 관련된 사항을 동료들과의 상의정도를 보면 매우 그렇다가 남자가 21.7%,

여자가 24.5%로 나타났지만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그렇다가 남자가 4.4%, 여자가 6.6%, 타 직종 친구들에 비한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가 7.3%, 여자가 7.6%로 여자가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앞으로 물리치료 업무의 지속 유무에 대해 그렇다가 남자는 75.4%, 여자가 66%로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표 2.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도

Table 2.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sexes

항목	구분	성별N(%)		p
		남	여	
흥미도	매우그렇다	36명(52.2%)	25명(23.6%)	X <sup>2</sup> =4.312 P=0.038
	그렇다	14명(20.3%)	52명(49.1%)	
	보통이다	15명(21.7%)	23명(21.7%)	
	그렇지않다	4명(5.8%)	5명(4.7%)	
	매우그렇지않다	0명(0%)	1명(0.9%)	
협조성	매우높다	14명(20.3%)	15명(14.2%)	X <sup>2</sup> =0.000 P=0.993
	높다	35(50.7%)	61명(57.6%)	
	보통이다	15명(21.7%)	28명(26.4%)	
	낮다	5명(7.3%)	2명(1.9%)	
동료들과 상의정도	매우그렇다	15명(21.7%)	26명(24.5%)	X <sup>2</sup> =1.148 P=0.284
	그렇다	26명(37.7%)	40명(37.7%)	
	보통이다	17명(24.6%)	31명(29.3%)	
	그렇지않다	7명(10.1%)	7명(6.6%)	
	매우그렇지않다	4명(5.8%)	2명(1.9%)	
보수의 적절성	매우그렇다	3명(4.4%)	7명(6.6%)	X <sup>2</sup> =0.100 P=.752
	그렇다	13명(19.8%)	13명(12.3%)	
	보통이다	23명(33.3%)	50명(47.2%)	
	그렇지않다	26명(37.7%)	27명(25.5%)	
	매우그렇지않다	4명(5.8%)	9명(8.5%)	
타직종과 비교 보수만족도	매우그렇다	5명(7.3%)	8명(7.6%)	X <sup>2</sup> =0.856 P=0.355
	그렇다	14명(20.3%)	23명(21.7%)	
	보통이다	21명(30.4%)	43명(40.6%)	
	그렇지않다	23명(33.3%)	24명(22.6%)	
	매우그렇지않다	6명(8.7%)	8명(7.6%)	
물리치료 업무의 지속 유무	그렇다	52명(75.4%)	70명(66%)	X <sup>2</sup> =2.320 P=0.128
	아니다	12명(13.4%)	21명(19.8%)	
	아직아무생각없다	5명(7.3%)	15명(14.2%)	

3. 결혼 유무에 대한 만족도

결혼 유무에 따른 직무 만족도는 기혼과 미혼 두 군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조사하였다. 현 근무처에서 받는 보수만족도는 매우그렇다가 기혼이 3.5%, 미혼이 6.8%로 미혼이 기혼보다 더 만족한다고 나타났고, 타 직종 동료들에 비해 현재 내가 받는 월급에 대한 만족

도 또한 매우 만족한다가 기혼이 3.5%, 미혼이 9.3%로 미혼이 기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 유한 차이는 없었다. 앞으로 물리치료업무의 지속 유무에 대해 그렇다가 기혼이 66.7%, 미혼이 71.2%로 미혼이 기혼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표 3).

표 3. 결혼유무에 따른 직무만족도

Table 3.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marital status

항목	구분	결혼 유무N(%)		p
		미혼	기혼	
보수	매우그렇다	8명(6.8%)	2명(3.5%)	X <sup>2</sup> =0.208 P=0.649
	그렇다	18명(15.3%)	8명(14%)	
	보통이다	44명(37.3%)	29명(50.7%)	
	그렇지않다	37명(31.4%)	16명(28.1%)	
	매우그렇지않다	11명(9.3%)	2명(3.5%)	
타직종과의 월급	매우그렇다	11명(9.3%)	2명(3.5%)	X <sup>2</sup> =0.104 P=0.748
	그렇다	23명(19.5%)	14명(24%)	
	보통이다	43명(36.4%)	21명(36.8%)	
	그렇지않다	31명(26.3%)	16명(28.1%)	
	매우그렇지않다	10명(8.5%)	4명(7%)	
장기적으로 할 생각	그렇다	84명(71.2%)	38명(66.7%)	X <sup>2</sup> =0.082 P=0.775
	아니다	20명(16.9%)	13명(22.8%)	
	아직아무생각없다	14명(11.9%)	6명(10.5%)	

4. 최종학력에 대한 직무 만족도

최종학력에 대한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에 전문대졸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년제대졸이 37.8%, 대학원졸이 51.9%로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타직종 동료들에 비해 현재 받는 월급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에 전문대졸이 36.9%, 4년제대졸이 40.5%, 대학원졸이 29.6%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현 근무처에서 받는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에 병원이 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이 1.5%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 근무처의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에 종합병원이 1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의원이 2.9%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4).

5. 근무처에 대한 직무 만족도

근무처에 대한 직무 만족도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3개 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기능력발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그렇다에 종합병원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과 일반의원은 2.9%로 가장 나타났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동료직원들 사이의 친밀감과 협조성은 매우그렇다에 종합병원 16.4%, 의원의 22.1%, 병원이 7.5%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치료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동료들과의 상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그렇다에 의원이 30.9%, 병원 26.5%, 종합병원이 13.4%로 나타났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의사와 물리치료사간의 팀워크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의원이 20.6%, 종합병원 17.9%, 병원 10%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치료실의 배치와 활동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그렇다에 종합병원이 16.4%로 가장 높게왔고, 의원이 2.9%로 가장 낮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치료용 기자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그렇다에 병원이 12.5%로 가장 높았고, 의원이 10.3%로 가장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5).

표 4. 최종 학력에 따른 직무만족도  
 Table 4. According to a middle school education, job satisfaction

항목	구분	최종학력			P
		대학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 졸업	
보수	매우그렇다	9명(8.1%)	0명(0%)	1명(3.7%)	X <sup>2</sup> =0.159 P=0.690
	그렇다	15명(13.5%)	9명(24.3%)	2명(7.4%)	
	보통이다	45명(40.5%)	14명(37.8%)	14명(51.9%)	
	그렇지않다	32명(28.8%)	12명(32.4%)	9명(33.3%)	
	매우그렇지않다	10명(9%)	2명(5.4%)	1명(3.7%)	
타직종과의 월급비교	매우그렇다	12명(10.8%)	0명(0%)	1명(3.7%)	X <sup>2</sup> =0.005 P=0.942
	그렇다	20명(18%)	8명(21.6%)	9명(33.3%)	
	보통이다	41명(36.9%)	15명(40.5%)	8명(29.6%)	
	그렇지않다	28명(25.2%)	11명(29.7%)	8명(29.6%)	
	매우그렇지않다	10명(9%)	3명(8.1%)	1명(3.7%)	

표 5. 근무처에 따른 직무 만족도

Table 5.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place of work

항목	구분	근무처N(%)			P
		종합병원	병원	의원	
자기능력발전	매우그렇다	22명(32.8%)	5명(2.9%)	2명(2.9%)	X <sup>2</sup> =19.222 P=0.000
	그렇다	25명(37.3%)	17명(42.5%)	27명(39.7%)	
	보통이다	15명(22.4%)	12명(30%)	23명(33.8%)	
	그렇지않다	4명(6%)	5명(12.5%)	14명(20.6%)	
	매우그렇지않다	1명(1.5%)	1명(2.5%)	2명(2.9%)	
동료들과 협조성	매우그렇다	11명(16.4%)	3명(7.5%)	15명(22.1%)	X <sup>2</sup> =0.899 P=0.343
	그렇다	38명(56.7%)	23명(57.5%)	35명(51.5%)	
	보통이다	13명(19.4%)	13명(32.5%)	17명(25%)	
	그렇지않다	5명(7.5%)	1명(2.5%)	1명(1.5%)	
동료들과 상의정도	매우그렇다	9명(13.4%)	11명(27.5%)	21명(30.9%)	X <sup>2</sup> =9.804 P=0.002
	그렇다	27명(40.3%)	14명(35%)	25명(36.8%)	
	보통이다	18명(26.9%)	11명(27.5%)	19명(27.9%)	
	그렇지않다	7명(10.5%)	4명(10%)	3명(4.4%)	
	매우그렇지않다	6명(9%)	0명(0%)	0명(0%)	
의사와 협동	매우그렇다	12명(17.9%)	4명(10%)	14명(20.6%)	X <sup>2</sup> =0.623 P=0.430
	그렇다	20명(29.9%)	13명(32.5%)	15명(22.1%)	
	보통이다	21명(31.3%)	17명(42.5%)	18명(26.5%)	
	그렇지않다	11명(16.4%)	4명(10%)	16명(23.5%)	
	매우그렇지않다	3명(4.5%)	2명(5%)	5명(7.4%)	
보수와 적절성	매우그렇다	1명(1.5%)	4명(10%)	5명(7.4%)	X <sup>2</sup> =5.782 P=0.016
	그렇다	9명(13.4%)	3명(7.5%)	14명(20.6%)	
	보통이다	27명(45%)	18명(45%)	28명(41.2%)	
	그렇지않다	23명(34.3%)	11명(27.5%)	19명(27.9%)	
	매우그렇지않다	7명(10.5%)	4명(10%)	2명(5%)	
복지시설	매우그렇다	11명(16.4%)	3명(7.5%)	2명(2.9%)	X <sup>2</sup> =19.202 P=0.000
	그렇다	26명(38.8%)	6명(15%)	9명(13.2%)	
	보통이다	16명(23.9)	17명(42.5%)	27명(39.7%)	
	그렇지않다	12명(17.9%)	10명(25%)	25명(36.8%)	
	매우그렇지않다	2명(3%)	4명(10%)	5명(7.4%)	
활동공간의 편리성	매우그렇다	11명(16.4%)	6명(15%)	2명(2.9%)	X <sup>2</sup> =4.285 P=0.038
	그렇다	25명(37.3%)	8명(20%)	25명(36.8%)	
	보통이다	14명(20.9%)	14명(35%)	20명(29.4%)	
	그렇지않다	16명(23.9%)	8명(20%)	16명(23.5%)	
	매우그렇지않다	1명(1.5%)	4명(10%)	5명(7.4%)	
기자재	매우그렇다	8명(11.9%)	5명(12.5%)	7명(10.3%)	X <sup>2</sup> =0.203 P=0.652
	그렇다	17명(25.5%)	7명(17.5%)	17명(25%)	
	보통이다	26명(38.8%)	18명(45%)	28명(41.2%)	
	그렇지않다	15명(22.4%)	10명(25%)	12명(17.6%)	
	매우그렇지않다	1명(1.5%)	0명(0%)	4명(11.9%)	

6. 근무 경력에 대한 만족도

경력에 따른 직무 만족도는 1년 미만, 1~10년, 10년 이상의 3개 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기능력발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그렇다에 경력 10년 이상이 36.7%로 가장 높았고 1년 미만이 10.7%로 가장 낮았지만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물리치료에 대한 기술이 환자치료에 잘 이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그렇다에 경력 10년 이상이 40%로 가장 높았고 1년 미만이 14.3%로 가장 낮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그렇다에 경력 1년 미만인 1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년 이상이 3.3%로 가장 낮았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현재 내가 받는 월급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그렇다에 경력 1년 미만인 10.7%로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이 3.3%로 가장 낮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6).

표 6. 근무 경력에 대한 직무 만족도  
 Table 6. Work experience for job satisfaction

항목	구분	근무 경력N(%)			P
		1년 미만	1~10년	10년 이상	
자기능력발전	매우그렇다	3명(10.7%)	15명(12.8%)	11명(36.7%)	X <sup>2</sup> =0.421 P=0.516
	그렇다	14명(50%)	47명(40.2%)	8명(26.7%)	
	보통이다	7명(25%)	39명(33.3%)	4명(13.3%)	
	그렇지않다	4명(14.3%)	13명(11.1%)	6명(20%)	
	매우그렇지않다	0명(0%)	3명(2.6%)	1명(3.3%)	
환자에게 적용	매우그렇다	4명(14.3%)	15명(12.8%)	12명(40%)	X <sup>2</sup> =5.205 P=0.023
	그렇다	7명(25%)	49명(41.9%)	11명(36.7%)	
	보통이다	15명(53.6%)	40명(34.2%)	2명(6.7%)	
	그렇지않다	2명(7.1%)	13명(12.1%)	5명(16.7%)	
보수	매우그렇다	3명(10.7%)	6명(5.1%)	1명(3.3%)	X <sup>2</sup> =1.354 P=0.245
	그렇다	5명(17.9%)	18명(15.4%)	3명(10%)	
	보통이다	12명(42.9%)	47명(40.2%)	14명(46.7%)	
	그렇지않다	6명(21.4%)	36명(30.8%)	11명(36.7%)	
	매우그렇지않다	2명(7.1%)	10명(8.5%)	1명(3.3%)	
타 직종과의 월급비교	매우그렇다	3명(10.7%)	9명(7.7%)	1명(3.3%)	X <sup>2</sup> =0.234 P=0.628
	그렇다	9명(32.1%)	18명(15.4%)	10명(33.3%)	
	보통이다	9명(32.1%)	44명(37.6%)	11명(36.7%)	
	그렇지않다	5명(17.9%)	36명(30.8%)	6명(20%)	
	매우그렇지않다	2명(7.1%)	10명(8.5%)	2명(6.7%)	

7.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그렇다에 8시간 근무자가 22.5%로 가장 높았고 10시간이 5.3%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내가 받는 보수가 나의 노력에 비해 볼 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매우그렇다에 8시간 근무자가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시간이 0%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앞으로 물리치료 업무의 지속유무에 대해서는 10시간이 81.6%로 가장 높았고 7시간이 38.5%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7).

표 7. 근무시간에 따른 직무만족도  
 Table 7.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working hours

항목	구분	근무시간N(%)					P
		5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근무시간	매우그렇다	1명(100%)	2명(15.4%)	16명(22.5%)	3명(5.8%)	2명(5.3%)	X <sup>2</sup> =33.882 P=0.000
	그렇다	0(0%)	2명(15.4%)	26명(36.6%)	17명(32.7%)	3명(7.9%)	
	보통이다	0(0%)	9명(62.9%)	25명(35.2%)	18명(34.6%)	10명(26.3%)	
	그렇지않다	0(0%)	0(0%)	3명(4.2%)	9명(17.3%)	17명(44.7%)	
	매우그렇지않다	0(0%)	0(0%)	1명(1.4%)	5명(9.6%)	6명(15.8%)	

보수	매우그렇다	0(0%)	1명 (7.7%)	6명(8.5%)	4명(7.7%)	0명(0%)	X <sup>2</sup> =1.006 P=0.316
	그렇다	0(0%)	1명 (7.7%)	11명 (15.5%)	10명 (19.2%)	5명 (13.2%)	
	보통이다	1(100%)	10명 (76.9%)	26명 (36.6%)	19명 (36.5%)	17명 (44.7%)	
	그렇지않다	0(0%)	1명 (7.7%)	20명 (28.2%)	18명 (34.6%)	15명 (39.9%)	
	매우그렇지 않다	0(0%)	0명(0%)	8명 (11.3%)	1명(1.9%)	1명(2.6%)	
장기적으로 활생각	그렇다	0(0%)	5명 (38.5%)	57명 (80.3%)	29명 (55.8%)	31명 (81.6%)	X <sup>2</sup> =1.290 P=0.256
	아니다	1(100%)	5명 (38.5%)	7명(4.9%)	17명 (32.7%)	3명(7.9%)	
	아직아무 생각없다	0(0%)	3명 (23.1%)	7명(9.9%)	6명 (11.5%)	4명 (10.5%)	

#### 8. 자립개설에 대한 물리치료사의 인식도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175명 중 찬성 146명으로 83.4%, 잘 모르겠다는 25명으로 14.3%, 반대는 4명으로 2.3%가 나타났다. 자립개설을 찬성한 사람들 중 그 이유는 물리치료의 전문성 강화가 65.1%로 가장 높았으며, 독립성 12.3%, 경제성 11%, 자기발전 8%순으로, 기타가 2.1%로 가장 낮았다. 자립개설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전문적인 이론 및 임상 치료기술 습득이 57.5%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분위기 조성 23.3%, 의사와의 관계개선 11%, 학제의 4년제 단일화 6.8% 순으로 나타났다.

개설분야는 근골격계 물리치료가 45.2%로 가장 높았으며, 신경손상 물리치료 40.4%, 소아 물리치료가 11%, 스포츠 물리치료 2.1%, 산부인과 및 흉부 물리치료 0.7%순으로 나타났다. 자립개설시 운영에 대한 자신감은 보통이다가 37%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있다 35%, 매우 자신있다 21.2%, 자신없다 4.8%순으로 나타났다.

자립개설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는 의사의 의식이 39.7%로 가장 높았으며, 물리치료사의 의식 29.5%, 물리치료사의 수준 26%순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몇 년 뒤 자립개설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5~6년이 26.7%로 가장 높았으며, 7~8년이 26%, 9~10년이 23.3%, 3~4년 15.8%, 11년이상 8.2%순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물리치료사들의 자립개설에 대한 인식도

Table 8. Awareness of the opening of their independence, a physical therapist.

항목	구분	찬반유무N(%)		
		찬성	잘모르겠다	반대
개설이유	경제성	16명(11%)	4명(16%)	.
	독립성	18명(12.3%)	0명(0%)	.
	자기발전	14명(8%)	7명(28%)	.
	전문성강화	95명(65.1%)	14명(56%)	.
	기타	3명(2.1%)	0(0%)	4명(2.3%)
반대이유	이론적 지식부족	.	.	1명(25%)
	치료기술부족	.	.	1(25%)
	의사와관계개선	.	.	2(50%)
먼저해야할일	전문적이론 및 기술습득	84명(57.5%)	13명(52%)	.
	학제의4년제통일	10명(6.8%)	3명(6.8%)	.
	사회적분위기	34명(23.3%)	6명(24%)	.
	의사와관계개선	16명(11%)	3명(12%)	.
	기타	2명(1.4%)	0명(0%)	.
개설분야	근골격계	66명(45.2%)	16명(64%)	.
	신경손상	59명(40.4%)	6명(24%)	.
	소아	16명(11%)	1명(4%)	.

	흥부	1명(0.7%)	0명(0%)	.
	산부인과	1명(0.7%)	0명(0%)	.
	스포츠	3명(2.1%)	2명(8%)	.
자신감	매우자신있음	31명(21.2%)	2명(8%)	.
	자신있음	51명(35%)	2명(8%)	.
	보통	54명(37%)	8명(76%)	.
	자신없음	7명(4.8%)	4명(16%)	.
결림돌	물리치료사의식	43명(29.5%)	10명(40%)	.
	물리치료사수준	38명(26%)	3명(12%)	.
	의사의의식	58명(39.7%)	8명(32%)	.
	기타	7명(4.8%)	4명(16%)	.
자립개설하는데 걸리는시간	3~4년	23명(15.8%)	3명(12%)	.
	5~6년	39명(26.7%)	7명(28%)	.
	7~8년	38명(26%)	3명(12%)	.
	9~10년	34명(23.3%)	5명(20%)	.
	11이상	12명(8.2%)	7명(27%)	.

#### IV. 고 찰

본 연구는 대한 물리치료사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물리치료사 중에서 현재 연구시점의 경남, 경남지역의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 175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조사하여 근무조건이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였다. 또한 현 물리치료사들의 자립개설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수준과 의식향상을 도모하여 미래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 중 60.6%, 기혼 67.4%, 전문대졸이 63.4%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대졸은 21.1%, 대학원졸업 이상은 15.4%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처는 병원이 38.9%, 경력은 2~10년이 66.9%,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 40.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배현정(2008) [20], 이충휘와 어경홍(1986) [21]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안소윤과 김종순(2005) [22]의 특성에 따른 직무 만족도와 직장 애착을 비교한 연구결과에서 성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본 조사연구에서는 남자가 52.2%, 여자가 23.6%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이한기와 박선일(2013) [9]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또한 이형수 등(2005) [23]의 지식기술 적용의 항목에서 남자가 28.3%, 여자 14.2%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근무처의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배현정(2000) [20]의 연구결과 '만족하지 않는다'가 50.8%로 가장 많았고, '만족한다' 23%, '잘 모르겠다' 21.3%순으로

많은 치료사들이 복지시설 및 근무환경에 대하여 불만족 한다고 보고 하였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잘 모르겠다'가 34.3%로 가장 높았고, '만족하지 않는다' 33.1%, 만족한다 32.6%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 가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일반 의원이 35%로 가장 높고, 병원은 8.3%로 가장 낮게 보고 하였다. 본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리치료사의 전문적인 기술습득과 4년제로의 학제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는데 [18], 경남지역 물리치료사들도 이같은 점들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차 물리치료사의 보수만족도는 3.3%, 타직종과의 급여비교만족도 역시 3.3%로 매우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21]의 결과와도 비슷하였다.

자립개설에 대한 찬반 의견은 이한기(2004) [8]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말그렇다가 47.7%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83.4%의 찬성률을 보여 15년만에 큰 찬성율을 나타내었다. 찬성의견 중 개설이유에 대하여 물리치료의 전문성 강화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7] [9] [21], 본 연구에서도 물리치료의 전문성 강화가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설 운영시의 자신감은 65.1%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한기(2004) [8]의 40%보다 훨씬 높게 조사되었다.

졸업 후 몇 년뒤에 자립개설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5~6년이 26.7%, 7~7년 26%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한기(2004) [8]의 9~10년이 31.8%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10여년이 흐른 사이 물리치료사들의 자립개설 욕구가 높여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에 앞서 해야할 일로서 학제개편과 실력배양을 들고 있는데 [25], 본 연구에서도 전문적인 물리치료 기

습득과 학제 일원화를 꾀고 있는 점은 비슷한 경향이  
었다.

물리치료의 중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  
의 자질향상과 함께 신기술 도입으로 시대의 변화와 요  
구에 맞도록 전문적인 이론과 기술습득이 필요할 것이  
며, 학제를 선진국과 같이 4년제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자립개설의 법제화에 대하  
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물리치료사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물리치료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도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대상자들이 어떤 모집단에서  
확률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 표본들이 아닌 경남지  
역 일부 병원에서만 조사대상자들을 선정하였으므로 전  
체 물리치료사들로서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자립개설 추  
진에 있어 중요한 해결점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며 자립  
개설의 이유와 당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경남지역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물리치료에 관한 인식정도를 조사함으로써 물리치료 인  
식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의료의 질적  
향상과 선진복지로 가는 길목에서 물리치료의 자립개설  
에 관한 의식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남지역 물리치료  
사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 일반적인 특성과 직무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성별에  
따른 물리치료에 대한 흥미도에서 남자가 52.2% 만족하  
는 것으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기능력 발전에 대  
해 종합병원이 32.8%로 의원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환자치료에 있어 물리치료 기술이 적절한가에 대  
해 근무경력 10년 이상이 40%를 차지하였다.

2. 자립개설에 대한 찬반의견 결과 찬성이 83.4%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찬성의견 중 개설이유에서 물리치료  
의 전문성 강화가 6.1%, 자립개설 시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일은 전문적인 이론 및 임상 치료기술 습득이 57.5%,  
개설 분야는 근골격계 물리치료가 45.2%, 개설 운영 시  
자신감은 보통이다가 37%, 자립개설 시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의사의 의식 39.7%, 졸업 후 몇 년 뒤 자  
립개설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은 5~6년이 26.7%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자립개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들의 전  
문적인 이론 및 임상치료기술을 습득하고, 물리치료사  
와 의사간의 의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물리치료 관련학과를 4년제로 일원화하고 물리치료사  
의 자립개설에 대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 Reference

- [1] Jeon JK. A study on the service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Vol.3 No.1. 9-37. 1991.  
DOI:http://doi.org/10.1111/j.1365-2516.2012.02766.x (0)
- [2] Yang SH. The job satisfaction in physical therapists for each type of medical institute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9, No.5. 147-152. 2015.
- [3] Hur YB, Kim WJ, Ahn SY, Lim JD. Role-related job stress of physical therapist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hysical Therapy science. Vol. 9. No.2. 87-98. 2002.
- [4] Baek JC. Problems of the physical therapy system of korea and their solution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5, No. 4. 138-146. 2011.  
DOI: : https://doi.org/10.21184/jkeia.2011.12.5.4.138
- [5] Bae SS, Kim DY, Nam SW, Jeon JK. The legal system for the independent practice of physical therap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Vol. 10, No. 1. 253-264. 1998.
- [6] An RS, Koo JW, Jeong YG. The factors influencing turnover intention of physical therapist.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Daegu University. Vol.57 No.1. 357-370. 2018.  
https://doi.org/10.23944/jsers.2018.03.57.1.16
- [7] Kim DG. The effects of s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hysical therapist for the aareness of ncessity of oening idependent cinic & professionalism of the phsical ttrtpis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12. 378-386.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12.378
- [8] Lee HK. Study about the degree of recogination and inpedendent establishment of physical trerapy of working physical therapist in Pusan-gyeongnam region. Masan University Thesis. Vol 24, No.- . 365-396. 2004.
- [9] Lee HK, Park SI. A Study on in in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physical therapist's Job Satisfaction and recogination. Masan University Thesis. Vol. 32, No.- . 147-158. 2013.
- [10] Lee SM. The effect of job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factors on work stres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5, No. 4. 790-806. 1995.  
DOI: https://doi.org/10.4040/jnas.1995.25.4.790
- [11] Park HK, Joo MW, Shin SC. An investigation on the physical therapists' cognizance of

- orthopedic manual therapy in public health cent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thopaedic Manual Therapy*. Vol. 8, No. 1. 15-24, 2002.
- [12] Oh YT, Bae SS, Jeon JK, Ra KY, Moon HM. A survey on working present status of physical therapis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Vol. 10, No. 1. 229-239. 1998.
- [13] Han SS. Review on the enhancement of accessibility to rehabilitation therapy -Especially on the solo practice of the physical therapis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hysical Therapy Science*. Vol. 22, No. 1. 19-27. 2015
- [14] Cho MS. A study on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culture types and job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ists.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Daegu University*. Vol. 47, No.3. 75-94. 2008.
- [15] Shim JH, Yoon TH. Analysis of factors that influence the job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Vol. 23, No. 1. 67-75. 2011.
- [16] Jeong HS. Job creation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 251, No.- . 14-27. 2017.
- [17] Kim HM, Song JY, Cho GS. Independent clinic open of physical therapis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Vol. 8, No. 1. 81-89. 1996.
- [18] Lee JH. Survey of the training and employment status of physical therapist in Korea. *The New Medical Journal*. Vol. 25, No. 8. 83-96. 1982.
- [19] Hong MA.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demographic a physical therapist and vocational interest. Master's Thesis, Myungji University. 2002.
- [20] Bae HJ. Physical therapists' consciousness level for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physical therapy clinic. Master's Thesis, Gyeongsan University. 2000.
- [21] Lee CH, Euo KH.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the physical therapis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Vol. 7, No. 2. 25-30. 1986.
- [22] Ahn SY, Kim JS. Difference of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HIV/AIDS between genders of physical therapists and physical therap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thopaedic Manual Therapy*. Vol. 11, No. 2. 26-39. 2005.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5.6.3.111>
- [23] Lee HS, Song HK, Kim HN Moon SA Park HJ, Hur EY et al. The study work conditions and job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ist in Jeonnam east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Vol. 17, No. 1. 71-86. 2005.
- [24] Song JY. A survey of physical therapist and student's recognition about opening authority of physical therapist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Vol. 17, No. 1. 25-39. 2005.
- [25] Lee BM. A study on the utilization and the expanding role of the physical therapist from Korea. Master's Thesis, Yongin University. 2001.